

은행

후기: 국내 은행 금융지주들의 해외법인 가치

김지원

금융 | jjwonkim@daolfn.com

● 신한 베트남 현지 사옥 방문 및 관련 후기

지난 9월 17~18일 양일간 베트남 호치민에서 신한지주 Analyst Day 방문. 베트남 경제 및 금융산업 현황 개괄과 신한 베트남 현지법인 사옥 방문 일정으로 구성. 신한지주가 진출한 해외 국가 중 일본에 이어 베트남이 비교적 선전 중인 시장으로 보임

신한베트남은행은 국내 은행 금융지주 진출 해외법인 및 베트남 내 외국계 은행 중 외형 체급적으로 성장해온 것으로 해석. 국내 은행 금융지주 진출 해외법인 중 2번째로 큰 자산규모, 베트남 현지 외국계은행 3사(신한베트남은행, HSBC은행, 베트남우리은행) 중에서도 가장 큰 자산규모 보유. 총자산 규모는 2025년말 기준 13.1조원, 2026년 상반기 기준 14.7조원으로 확대. 과거 2011년 Vina Bank 합병, 2017년 ANZ Bank 리테일 부문 인수를 통해 외형 성장 지속

2025년 연간 기준 순이익 2,221억원에, 수익성은 ROA 1.7~2.0%, ROE 11.8% 수준. 대출자산 운용수익률 측면에서 국영은행 포함한 현지 대형 은행들 대비 높으나, ROE가 낮아 순이익 누적 지속 대비 자본활용 레버리지가 낮은 편으로 해석. 이는 베트남우리은행도 유사한 양상으로 해석

여신 포트폴리오는 가계대출 중심. 2016년 이전에는 기업대출 중심이었으나, 2017년 ANZ Bank 리테일 부문 인수 이후 현재의 구조(가계대출 59.0%, 기업대출 41.0%)가 된 것으로 해석. 가계대출은 주택 및 자동차 중심의 담보대출 위주. 기업대출은 FDI 기업과 현지 기업으로 이원화해 대출 취급 중. Vingroup 포함 대기업들의 대출 수요 지속으로 현지 기업 대상 영업 확대 중. 현지 기업 대출 비중 50.8%으로 확대. 참고로, 베트남 전체 은행 대출잔액 중 산업별 비중은 기타서비스업(45.2%; 부동산 및 임대업으로 추론)>무역업(22.4%)>제조업(16.1%) 순. 베트남 은행산업 집중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국영은행 외에도 현지 대기업 연계 은행들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 이에 추가적인 외형경쟁보다 외국계은행들은 선별적인 대출 취급 가능성

● 국내 은행 금융지주들의 해외법인 존재 가치 확인

국내 은행 금융지주들의 해외 진출 현황 및 가치 확인 측면에서 의의. 그간 국내 은행들의 해외 진출은 (1) 경제협력 차원의 금융사 해외진출 정책적 부응, (2) 국내 시장 외의 성장동력 확보 측면에서 이루어져왔다고 해석. 2025년 연간 기준 신한베트남은행 순이익이 전체 연결 순이익의 4.5% 정도로 기여도 절대값 측면에서 큰 편은 아니나, 현지 대출 영업 과정에서의 딜 소싱 등 파생되는 기회 창출 측면에서 순이익 기여도 이상의 플랫폼으로서의 국내 은행 해외법인 가치를 확인함. 다만, 국가별 현황에 따라 행정절차 과정 중 과태료 부과 사례들도 존재하여 비용 부담 가능성도 지주 연결 순이익 측면에서 확인 필요하다고 사료됨

Fig. 1: 국내 4대 은행 금융지주의 해외법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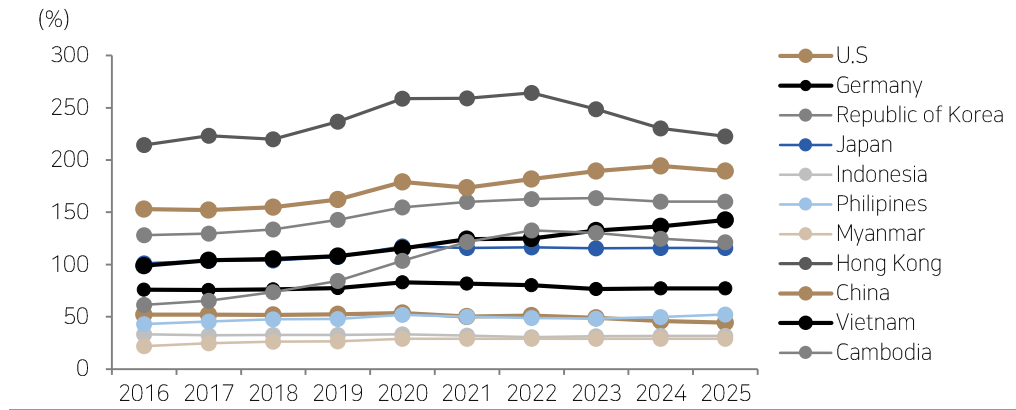
(%, 십억원)

국가명	설립연도	국내 은행 해외법인	지분율	총자산
인도네시아	1990	KB뱅크(구 부코핀은행)	95.9	7,356.6
	1983	KB 부코핀파이낸스	99.2	726.4
	2015	신한인도네시아은행	99.0	2,348.3
	1971	PT Bank KEB Hana	69.0	4,568.5
	1975	우리소다라은행	90.8	5,261.1
베트남	2009	신한베트남은행	100.0	13,114.4
	2017	베트남우리은행	100.0	4,670.0
캄보디아	2011	KB 프라삭은행	100.0	8,119.0
	2007	신한캄보디아은행	97.5	1,417.3
	2003	캄보디아우리은행	100.0	1,920.6
미얀마	2020	KB 미얀마은행	100.0	314.3
	2017	KB 마이크로파이낸스	100.0	18.5
	2015	우리파이낸스미얀마	100.0	49.8
필리핀	1967	우리웰스뱅크필리핀	51.0	284.8
중국	2012	KB 국민은행중국유한공사	100.0	4,469.1
	2008	신한은행중국유한공사	100.0	6,275.6
	2007	하나은행중국유한공사	100.0	10,485.4
	2007	중국우리은행	100.0	6,588.8
홍콩	2009	KEB 하나글로벌재무유한공사	100.0	446.1
	2006	홍콩우리투자은행	100.0	860.7
미국	1990	아메리카신한은행	100.0	2,736.3
	2004	KEB 하나뉴욕파이낸셜	100.0	683.3
	2004	KEB 하나로스엔젤레스파이낸셜	100.0	1,323.1
	1988	Hana Bancorp, Inc	98.3	309.2
	1984	우리아메리카은행	100.0	5,689.4
캐나다	2009	캐나다신한은행	100.0	1,124.5
	1981	캐나다 KEB 하나은행	100.0	2,439.8
러시아	2014	러시아 KEB 하나은행	99.9	1,305.9
	2008	러시아우리은행	100.0	616.0
일본	2009	SBJ 은행	100.0	17,057.3
독일	1994	유럽신한은행	100.0	1,027.5
	1992	독일 KEB 하나은행	100.0	1,800.2
	2018	유럽우리은행	100.0	963.4
카자흐스탄	2008	신한카자흐스탄은행	100.0	2,086.0
멕시코	2015	멕시코신한은행	99.9	530.6
	2017	멕시코 KEB 하나은행	99.9	456.2
브라질	1998	브라질 KEB 하나은행	100.0	337.5
	2012	브라질우리은행	100.0	222.8

Note: 음영은 총자산 규모 5조원 이상 임의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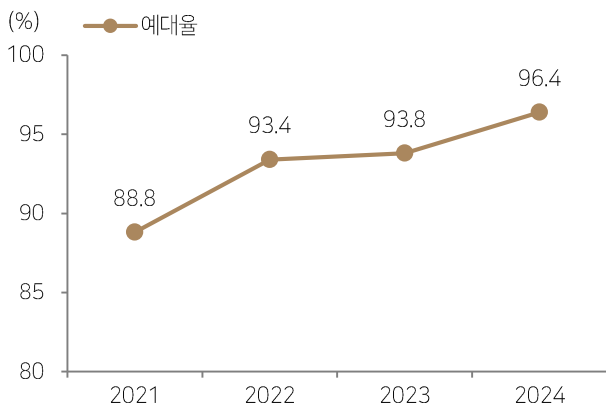
Source: 다올투자증권

Fig. 2: Bank Credit as % of GDP: 국내 은행 금융지주 해외법인 진출 국가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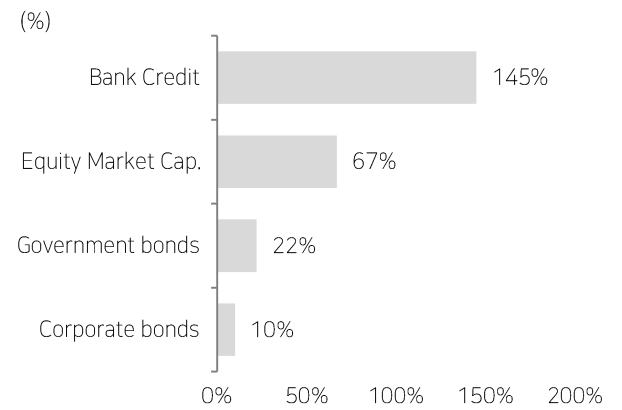
Source: World Bank, 다올투자증권

Fig. 3: 베트남 예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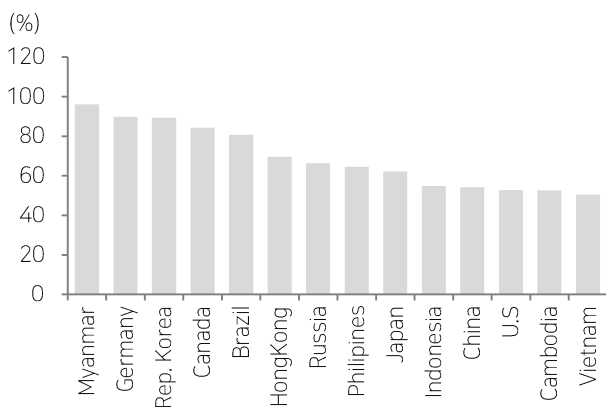
Source: IMF, 다올투자증권

Fig. 4: 베트남 자금 조달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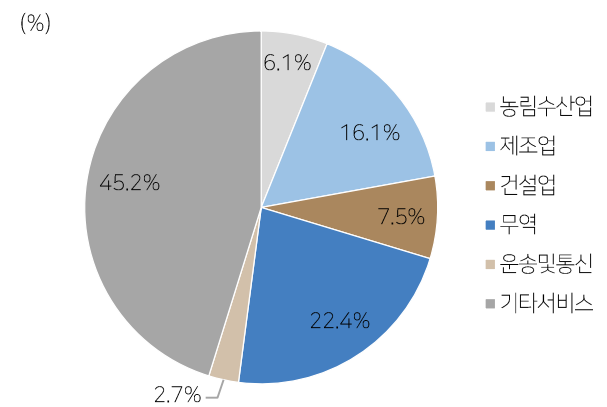
Source: KPMG, 다올투자증권

Fig. 5: 국가별 상위 5대 은행 집중도



Source: World Bank, 다올투자증권

Fig. 6: 베트남 산업별 은행 대출금 잔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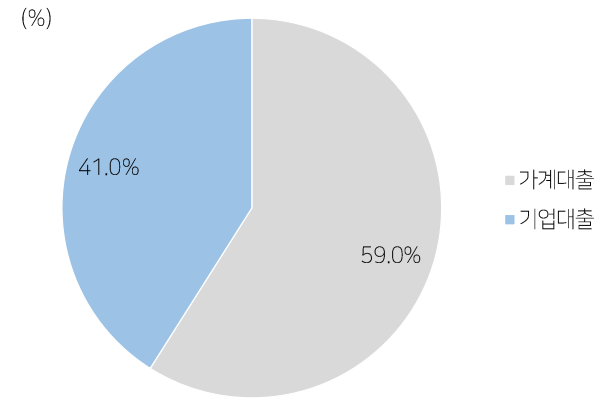
Source: State Bank of Vietnam, 다올투자증권

Fig. 7: 국내 4대 은행 금융지주별 해외 전략(2026년 기준)

기업명	비고
KB금융	인도네시아 핵심 거점 및 현지 금융 플랫폼 확대
신한지주	베트남, 일본 양 축 강화, 중양아시아 및 선진국 투자 확대
하나금융	인도네시아 중심 현지 영업 및 디지털 금융 확대
우리금융	미국, 일본 등 선진시장 중심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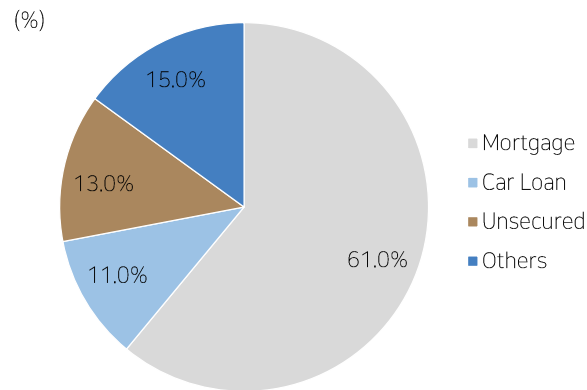
Source: 언론보도종합, 다올투자증권

Fig. 8: 신한베트남은행 여신포트폴리오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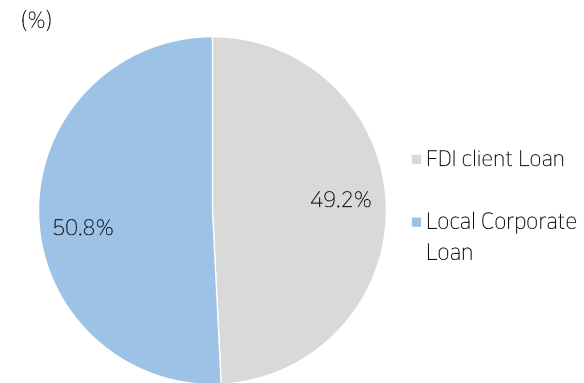
Source: 신한베트남은행, 다올투자증권

Fig. 9: 신한베트남은행 여신유형별 구성: 가계대출



Source: 신한베트남은행, 다올투자증권

Fig. 10: 신한베트남은행 여신유형별 구성: 기업대출



Source: 신한베트남은행, 다올투자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본 자료를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 현재 해당 기업의 인수·합병의 주선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서 추천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 현재 해당 기업의 계열사가 아닙니다. 당사는 동 종목에 대해 자료작성일 기준 유가증권 발행(DR, CB, IPO, 시장조성 등)과 관련하여 지난 12개월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의 김지원 애널리스트는 신한지주 애널리스트 데이에 신한지주의 비용 제공(숙박비, 식사비 등)으로 참석한 사실이 있음을 고지합니다. 당사는 상기 명시한 사항 외에 고지해야 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 및 그 배우자는 발간일 현재 해당 기업의 주식 및 주식 관련 파생상품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의 조사분석담당자는 어떠한 외부 압력이나 간섭 없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본 자료는 '나눔스퀘어'와 '아리따 글꼴'을 사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투자등급 비율

BUY : 93.5% HOLD : 6.5% SELL : 0.0%

투자등급 관련사항

아래 종목투자 의견은 향후 12개월간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기대수익률을 의미

- BUY: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 이상.
- HOLD: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 이상 ~ +15% 미만.
- SELL: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 미만.

투자 의견이 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등급 기준과 일시적으로 다를 수 있음

동 조사분석자료에서 제시된 업종 투자 의견은 시장 대비 업종의 초과수익률 수준에 근거한 것으로, 개별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과 다를 수 있음

· Overweight: 해당 업종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KOSPI 수익률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 Neutral: 해당 업종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KOSPI 수익률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 Underweight: 해당 업종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KOSPI 수익률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주) 업종 수익률은 위험을 감안한 수치